

개학 일주일새 1만6000명 확진 '혼란'

광주·전남 하루 평균 2400명 꼴...141개 학교 원격·비대면 수업

새 학기 개학 이후 일주일 간 광주·전남지역에서 학생 등 학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2350여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확진되는 학교 종사자들이 증가하면서 원격이나 비대면수업에 들어간 학교들이 늘어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23만2608명 중 유·초·중·고교생은 1만4230명(61.2%)으로 하루 평균 2300여명의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도 광주 602명, 전남 580명 등 모두 1182명이 확진됐다.

학생은 물론 교직원 등 학교종사자들의 감염으로 원격이나 비대면 수업에 들어간 광주·전남 지역 유

·초·중·고교는 모두 141곳(6일 기준 집계)에 달했다. 유치원은 19곳, 초등학교 116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 특수학교 3곳이다.

방역 당국은 개학과 선거 등의 영향으로 학생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 양성이나 음성 그 결과를 학교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월요일에 PCR검사를 진행하고, 화요일에 결과를 통보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학교가 감염상황을 고려해 ▲정상 등교 ▲전면 등교+대면활동 제한 ▲부분 등교, 부분 원격 ▲전면 원격 4가지 중 한 유형을 택해 탄력적으로 학

사 운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 대학들 역시 상황은 비슷해 개강 첫 주 동안 광주 203명, 전남 124명이 코로나 19에 감염돼 하루 평균 5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확진자 급증은 오미크론 상황에서도 교육부 방침에 따라 각 캠퍼스에 등교하는 대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등교수업 중심 운영방침을 유지할 계획이어서 보다 철저한 방역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기 초 대부분의 학교가 등교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교육부의 학사 운영 방침은 당분간(11일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8일 적은 주간 이후의 학사 운영 방침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좀 더 협의를 진행해 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금의 방침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대 사범대, 또 일냈다

교사임용 304명 합격...거점국립대 3년 연속 '최다' 졸업과 동시에 합격 57명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주효

전남대학교가 올해 교사임용시험에서 무려 304명의 합격생을 배출하면서 3년 연속 거점국립대 1위를 차지했다.

전남대 사범대학은 2022학년도 전국 교사임용시험에서 수학 25명을 비롯해 사범대학 16개 전공에서 238명의 합격생을 배출했다. 또 상당 23명 등 교육대학원과 일반교직에서도 66명이 합격했다.

이는 거점국립대 가운데 3년 연속 최다합격의 쾌거로, 다른 거점대학의 합격자가 200명대 이하에 머문 것에 비해 크게 앞선 수준이다.

특히 교원시험 재수가 일반화될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부 졸업과 동시에 합격한 학생이 57명이나 돼 교수들의 지도역량을 바탕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 134명을 비롯해, 광주 39명, 경기 25명, 전북 18명 순이고, 충남, 인천, 서울, 부산 등 합격생 배출이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이중 광주지역은 전체 채용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면서 합격자 수가 함께 감소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동해안 산불' 피해민 힘내세요 8일 오전 광주시청 행정동 앞에서 이용섭광주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경상북도 울진군·강원도 삼척시 산불피해 지역에 보내는 긴급 구호물품 트럭을 환송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확진산모 분만 의료기관에 300% 가산수가

환자는 추가 부담금 없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도 다니던 병원에서 안전하게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가산 수가를 적용해 보상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확진 산모가 병·의원에서 분만할 경우, '분만 격리관리료' 항목을 신설해 300%의 가산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항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동네 병·의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필요한 진료비,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산정해 수가에 반영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즉,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정규 분만 수가에 새로 추가된 분만 격리관리료까지 더한 총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보상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자연분만할 경우 총금액은 분만 격리관리료 약 175만원을 더한 245만원, 제왕절개시 약 120만원을 더한 168

만원이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자연분만을 할 때 들어가는 총금액은 격리 관리료 약 201만원을 더한 279만원, 제왕절개는 격리 관리료 약 138만원을 더한 191만원이 된다.

다만 환자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추가되는 금액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면제된다.

정규 분만 수가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확진 임신부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2만원 가량이고, 자연분만은 무료다.

정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수가를 적용하며, 지난달 25일 이후 환자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농민단체 "정부, 비료 값 폭등 대책 마련하라"

농민단체가 비료 값 폭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비료값 선별 보조를 중단하고 인상분 전액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연맹은 "지난해 9200원에 판매되던 요소 비료가 올해 2만 8900원 판매되고 있다"며 "당장은 인상분의 80%인 1만4650원을 보조받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러 "정부는 사재기 현상을 막기 위해 보조금 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비료 가격이 안정되면 사재기할 농민은 없다"며 "사재기를 격정할 것이 아니라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아울러 농가별 비료보조금 한도 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요소비료 외에도 원예용 복합비료 등 모든 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동강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선정

참여자 28일까지 모집

동강대학교가 지역 청년 창업가들의 조기 정착을 돕고 창업 성공률을 높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동강대 창업지원단은 광주북구청과 함께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세부 사업은 '창업 청년 성장 UP 고용 PLUS

지원' 프로그램으로 국비와 시·구비 2억 6000여 만 원을 투입해 창업 후 정착·성장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동강대는 첫 해에는 입차료와 시제품 제작 및 홍보·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2년 차에는 고용 창출 시 청년 인건비를 뒷받침한다.

이번 지원 사업 참여자는 21명으로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강사랑환경대학' 참가자 모집

사단법인 밀알중앙회와 강사랑환경대학이 '제8기 강사랑환경대학' 참가자를 모집한다.

강의는 오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17강으로 금남로 광주밀알신협 4층 강당에서 진행되며, 전액 무료로 운영한다.

강사진은 채정기(전남대 명예교수), 김정수(전남환경산업협회 사무국장), 남기홍(전 국제교사), 민준기(전남대 독일언어문학과 교수), 강영

란(장성 숲과문화학교장), 김중필(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오병철(국제기후환경센터 박사), 박남규(강사랑환경대학 강사) 등이다.

15일에는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이 열리며, 이론 교육과 함께 현장교육도 4차례 진행된다.

환경보전과 기후위기에 관심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면 강의나 비대면 화상(zoom)강의를 신청성있게 운영하고, 현장교육은 참가인원을 매회 30명으로 제한한다. 수강회 명자는 먼저 문자(SNS)로 성명·휴대폰번호를 보내고, 방문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처리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1522-9341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